

# 오영진의 글쓰기와 민족주의 :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계

이상우\*

에서는 일제 식민지 농촌정책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데 초점이 놓여있었던 것에 비해, <한네의 승천>에서는 현실 비판적인 요소는 소거한 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숙명, 그리고 불교적 윤회(輪廻)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 주력했다. 더 나아가 마을굿(洞祭)이라는 민속제의식과 탈춤, 사당패놀이 등 전통연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의식을 담아 작품 속에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현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진상>에서 <한네의 승천>으로 나아가면서 오영진의 민족주의는 한층 진화되고 깊이 있는 내면적 숙성을 획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오영진, 이중어 글쓰기, 민족주의, 정전, 김사랑, 민속제의식

## 1. <진상>이 갖는 의미

오영진(吳泳鎭)은 이른바 ‘민속의례(民俗儀禮) 삼부작’이라고 불리는 시나리오 <배뱅이굿>(1942), <맹진사댁 경사>(1943), <한네의 승천>(1972)을 썼다. 한국의 대표적 민속의례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배뱅이굿>은 상례(喪禮), <맹진사댁 경사>는 혼례(婚禮), <한네의 승천>은 제례(祭禮)를 각기 소재로 삼아 창작되었다. 이 일련의 시나리오들은 오영진 자신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한국적 정체성(identity)을 잘 대변하는 극작품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특성 때문에 그는 희곡과 시나리오 장르 부문을 막론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그는 민족주의 사상을 지닌 극작가로도 유명하다.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작품의 경향도 그러한 측면을 말해주지만, 식민지시기와 해방기, 그리고 1950~60년대에 걸쳐 나타난 적극적인 반공, 반일 민족주의 사상과 활동은 오영진이 민족주의 성향의 작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단서가 된다. 오영진을 민족주의 극작가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sup>1)</sup> 그러나 그가 소설가로 문학의 첫

### <차례>

1. <진상>이 갖는 의미
2. 오영진의 <진상>과 이중어 글쓰기
3.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계
4.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오영진의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은 한국의 민족정체성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서 한국 극문학의 정전(正典)으로 꼽힌다. 이에 오영진은 자신의 민족주의 활동과 결부되어 한국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재현한 극작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 시대에 5편의 일본어 소설과 2편의 일본어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특히 그가 1930년대 일본어로 쓴 소설 <진상>은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의 원천이 되는 작품이다. <진상>은 표면구조를 보면 인간의 애욕과 질투라는 욕망의 갈등을 다룬 통속적 작품으로 보이지만 심층구조를 살펴보면 당대 총독부의 식민지 농촌진흥정책(자력갱생운동)의 허구성을 예리하게 꼬집고 비판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영진과 동향의 평양고보 동창생 작가 김사랑의 소설 <덤불 헤치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식민지시대 일본어에 능숙한 엘리트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일본어문학은 상대적으로 일제의 검열이 허술한 일본어창작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민족주의적 욕망을 표출한 측면, 그리고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피식민지의 차별을 극복하고 제국의 문단 중심, 세계적 보편성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제국주체로의 욕망의 양가성이 병존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상>과 <한네의 승천>, 두 작품 사이에 슬픈, 난봉꾼인 주인공이 새로운 사랑을 얻어 갱생하려고 하지만 적대자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는 서사구조에서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진상>에서는 서씨를 둘러싼 철수와 성삼의 삼각 갈등구조가, <한네의 승천>에서는 한네를 둘러싸고 만명과 필주의 삼각 갈등구조가 밟힌다는 점은 매우 유사하다.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주인공을 '선녀(仙女)'의 이미지로 표상한 점도 동일하며, 기본적인 인물 설정 방식 또한 유사하다. 다만, <진상>

1) 그 대표적 실례가 유민영과 서연호의 논문에서 잘 드러난다. 유민영은 오영진의 정치관을 ‘배타적 민족주의’로 규정하였고(유민영, 『정치에 희생된 인텔리 극작가』,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16면), 서연호는 오영진이 부친과 조만식의 영향을 깊이 받아 일찍부터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닌 작가라고 말했다. (서연호, 오영진, 웃음의 미학 혹은 비판적 투시,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37면)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걸음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들이 모두 일본어 작품이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오영진이 일제 말기에 발표한 시나리오 <배뱅이굿>(『국민문학』, 1942.8)과 <맹진사댁 경사>(『국민문학』, 1943.4)도 모두 일본어로 창작되었으나 이는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일본어(國語) 사용이 강제된 일제 말기에 발표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조선어로 창작이 가능했던 1930년대에 그가 쓴 작품이 모두 일본어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쓴 작품들이 민속의례라는 소재를 담고 있어 한국적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점, 또 그가 일생을 반공, 반일 민족주의 활동에 투신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우리가 그에게 단정적으로 민족주의 극작가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것에 대해 차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지면에 발표된 오영진의 처녀작품은 193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京城帝國大學 豫科) 동인지 『청량(淸涼)』18호에 수록된 단편소설 <할머니(婆さん)>(1934.7)이다. 동인지 『청량』에는 당시 조용만(趙容萬), 고정옥(高晶玉), 김영년(金永年), 구자균(具效均) 등 다수의 조선인 학생들의 작품이 실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sup>2)</sup> 오영진은 경성제대 예과 시절부터 문학 창작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창작열은 경성제국대학 본과(本科) 재학 시절에도 꾸준히 이어져서 1936년에 성대(城大) 본과생 문학동인지 『성대문학(城大文學)』에 모두 4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성대문학』 2호(1936.2)에 <진상(真相)>을 비롯해 3호(1936.5)에 <친구가 죽은 뒤에(友の死後)>, 4호(1936.7)에 <거울(かがみ)>, 그리고 5호(1936.10)에 미완성작 <언덕 위의 생활자(丘の上の生活者)> 등 1년간 4편의 소설을 연달아 발표하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여주었다.

『성대문학』은 경성제대에 재학하는 일본인 문학 지망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만든 문학동인지였다. 일본인 학생 이시키 고(一色豪)가 줄곧 동

인지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이 동인지의 대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일본인 동인으로는 미야자키 세이타로(宮崎清太郎), 와타나베 마나부(渡部學), 다나카 마사미(田中正美),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모리다 시로(森田四郎) 등이 있었으며, 조선인 동인으로 오영진(吳泳鎭)과 이석곤(李碩崑)이 있었다. 오영진은 『성대문학』 2호(1936.2)에 <진상>을 발표함으로써 동인에 가담하게 된다. 『성대문학』 2호 편집후기를 보면, 새로운 동인으로 참가하게 된 오영진의 역작을 얻게 되어서 기쁘며, 이석곤도 동인이 되어서 “금후(今後) 반도학생(半島學生) 양군(兩君)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하였다.<sup>3)</sup> 이를 통해 볼 때, 당초 이 동인지의 창립 당시에 조선인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호 발간의 준비 시점에 두 사람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영진은 일본인 학생들이 만든 일본어 문학동인지에 보기 드문 조선인으로서 참여하여 일본어로 소설을 썼던 것이다. 그만큼 그에게 창작에 대한 열망이 매우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영진이 『성대문학』에 발표한 4편의 소설 중에 특히 <진상>은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그것은 이 작품이 훗날 발표되는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의 창작 원천이 되는 작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소설 <진상>과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의 영향관계는 권오만의 논문 「오영진의 삼부작에 대하여 - 구비문학과 관련을 중심으로」(1972)에서 소략하게나마 처음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한네의 승천>이 일문 소설 <진상>의 스토리를 그대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인물들의 이름까지 똑같이 옮겨 쓰고 있다고 서술한 것은 사실과는 다른 오류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아마도 <진상>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오만의 논문 이후 아직까지 두 작품의 상관관계를 명료하게

3) 編輯後記, 『城大文學』2호, 1936.2.

4) 권오만, 오영진의 삼부작에 대하여 - 구비문학과 관련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8-20합병호, 1972. (한국극예술학회 편,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257면)

2) 노상래, 『淸涼』소재 이중어 소설에 대한 일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35집, 2008.12. 73면. 신미삼, 『淸涼(淸涼)』소재 이중어 소설 연구, 『한민족어문학』53집, 2008.12. 102-103면.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한옥근이 『오영진 연구』에서 “<진상>이 일간잡지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통속적인 내용의 현실소재로 쓰여진 것이지만 30년 후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으로 재구성될 때에는 이미 설화의 세계로 전환”되었다고 밝힘으로써 두 작품의 영향관계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연구서에서도 역시 <진상>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sup>5)</sup> 이는 이제까지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모두 <진상>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진 단편적 언급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오영진의 일본어 소설 <진상>은 비록 학생 시절에 창작된 일본어 작품이기는 하지만 <한네의 승천>의 창작원천이 되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오영진의 작가의식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따라서 <진상>의 분석을 통해 <한네의 승천>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심장한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네의 승천>은 오영진의 ‘민속의례 3부작’ 가운데 한 편이자 그 완결관으로서 오영진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런데, 식민지시대 일본어 문학동인지에 일문(日文)으로 창작된 소설 <진상>이 민족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작품이자 한국 극문학의 정전(正典)으로 인식되는 <한네의 승천>의 오리지널이라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본고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 2. 오영진의 <진상>과 이중어 글쓰기

일본어로 쓴 소설 <진상>(1936)은 사용된 언어와 관계없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촌 현실을 사실감 있게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철수(哲洙)는 지독한 술꾼(大酒飲み)이자 난봉꾼(ならずもの)으로 마을에서 유명한 소작인(小作人)이다. 이로 인해 그는 본처 김씨(金氏)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관계이다. 김씨가 철수와 싸우고 나서 가출하여 며칠째 돌아오지 않던 어느 날 철수는 시내 거리에서 구걸하는 젊고 예쁜 여인 서씨(徐氏)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된다. 성정이 거친 본처 김씨와 달리 ‘선녀(仙女)’와 같이 아름다운 심성과 용모를 지닌 서씨와 함께 살면서 철수의 방종한 생활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게 된다. 음주와 난봉질을 그만 두고 착실한 농사꾼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올해도 풍년이야.”

그는 석양빛을 받아 일종의 따뜻함마저 감도는 누렇게 여문 벼들을 둘러보았다.

“풍년에, 새색시인가!”

그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이 정도면 이 년 안에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있어. 각시를 위해서 돈을 모아 두지 않으면 안 되겠어. 우선 돈을 모아서 집을 고쳐야지. 정말이지 지금 사는 집은 돼지우리간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는 서씨를 들이고 나서 새해 아침을 맞이한 소년처럼 “술을 마시지 말 것”, “한가할 때는 물고기를 잡거나 빨감을 모으러 나갈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결심을 한 치도 뒤엎지 않고 지켜왔기에 그는 공연히 신이 났다.

달이 떴다 달이 떴다.

돈 벌러 가세.<sup>6)</sup>

5) 한옥근, 『오영진 연구』, 시인사, 1993. 69면.

6) <真相>, 『城大文學』2號, 1936.2. 10면.

젊고 예쁜 새 아내 서씨를 얻은 행복감으로 인해 철수는 술을 끊고 착실히 일하면서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철수에게 젊고 예쁜 아내가 생기게 되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은연중 철수를 질투하게 된다. 특히 지주이자 마을의 자력갱생회(自力更生會) 회장인 성삼(成三)의 질투는 매우 집요한 것이었다. 한편, 면사무소 서기(書記)인 부기(富基)는 성삼을 매우 싫어해서 은근히 철수를 도와주려 하는데, 그것은 성삼이 “병적으로 질투심이 깊고 음험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부기가 알기로 성삼은 “아우의 아내를 몰래 좋아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사오백 원을 동생 부부에게 쥐여 주고 내쫓았다”는 나쁜 소문도 있고, “칠팔 년 전 부기의 모교인 M고등보통학교를 중도에 퇴학하고서 대학에 간담시고 다렌으로 도쿄로 기생을 끼고 어슬렁거렸던” 적이 있을 만큼 행실이 좋지 않았던 인물이면서 마치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인척 위선적 행동을 하는 인물인 것이다.<sup>7)</sup>

성삼 역시 이번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지금껏 그는 소작인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구태여 간섭한 적이 없었다. 옆집 최씨가 자기 남편의 방탕함을 하소연해 왔을 때도 “곧 나아지겠지요.”하고 한 마디 대꾸할 뿐 도무지 상대하려 들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듯했다. 그는 ‘X촌 자력갱생회 회장으로서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이런 모범촌에 둘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것이 그들 동네 사람들, 즉 성삼의 소작인들로 하여금 철수의 신혼살림이 도저히 있어선 안 될 께빚한 것인 양 여기게끔 만든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성삼은 재력과 청렴함과 도덕심과 학식으로 이 마을 사람들(특히 여자들)의 칭찬과 동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의견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sup>8)</sup> (밑줄, 인용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성삼의 위선적 태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재력과 청렴함, 도덕심, 학식을 지녔다고 알려진 마을의 절대적 존재인 자력갱생회 회장 성삼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을 뿐이다. 면 서기 부기만이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나 지주인 성삼이 철수를 불러내 마을(모범촌)의 ‘체면’을 생각해서 서씨와 헤어지고 본처 김씨와 재결합하라는 강요에 대해 소작인인 철수는 저항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성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작을 떼일지도 모르며 마을 공동체로부터 외면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철수는 결국 성삼의 요구대로 서씨와 헤어지고 만다. 주위의 강요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선녀’를 잃고 만 것이다. 서씨와 헤어진 뒤 철수는 실의에 빠져 다시 술꾼이자 난봉꾼인 예전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얼마 못가서 철수와 다투다가 또 다시 집을 나가고 마는데, 그녀가 성삼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이 부기에 의해 목격된다. 결국 서씨를 빼돌린 것을 비롯해 김씨를 뒤에서 움직인 것이 모두 성삼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성삼과 사이가 나쁜 부기는 이 모든 사실을 철수에게 폭로하리라고 결심한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인간의 근원적 욕망과 질투의 문제를 다룬 통속적인 작품처럼 보인다. “일간잡지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통속적인 내용의 현실소재로 쓰여진 것”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볼 때, 이 소설은 일제의 식민지 농촌정책(특히 농촌 자력갱생운동)이 보여준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술꾼이자 난봉꾼인 소작인 철수가 아리따운 걸인(乞人) 여성(仙女)을 만나 착실한 농사꾼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것, 즉 갱생하고자 하는 것을 자력갱생운동회 회장인 성삼과 그 회원들(마을 사람들)의 질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 타락 농민의 자발

7) 위의 글, 5면.

8) 위의 글, 4-5면.

9) 한옥근, 앞의 책, 같은 곳.

적인 갱생 기회를 자력갱생회가 좌절시키고 만다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적 의도인 것이다.

이 소설에 나타난 자력갱생운동의 아이러니는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던 농촌진흥운동의 주요 사업인 이른바 ‘농가갱생계획(農家更生計劃)’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일종의 관제(官製) 농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29년경에 불어 닥친 세계 경제공황의 직접적 피해계층인 농민들이 소작쟁의, 농민조합운동 등 생존을 위한 저항운동을 뜨겁게 전개하자 농민 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농촌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자력갱생운동의 본질이 식민지 농촌 사회의 근본적인 발전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지주, 재력가 등 농촌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의 자율적 통제조직을 만드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애당초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농촌진흥운동의 방향이 ‘자력갱생’에서 전쟁 물자의 조달을 위한 ‘증산(增産)’으로 수정된다는 것은 농촌진흥운동의 설치 목적이 조선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총독부를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 농촌 사회의 기간 조직을 이루던 자력갱생회가 개별 농민의 욕망을 억압하는 모순적 상황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이 소설은 1930년대 중반 농촌 사회의 근본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 사실주의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관립대학의 미숙한 학생 신분인 오영진이 대담하게 제국대학의 문학동인지에 이처럼 당대 농촌 사회의 모순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점은 오영진 개인의 예리한 통찰력도 있었지만, 1930년대 중반 들어 농촌진흥

운동의 반시대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했던 것이다. 심지어 경성공립농업학교 교장 노무라(野村)와 같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농촌 갱생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이었다.<sup>11)</sup>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영진의 소설 <진상>이 창작되었던 것이다.

<진상>이 보여준 당대 농촌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학적 특징은 여러 가지 점에서 1940년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작 작가였던 김사량(金史良)의 일본어 소설과의 친연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의 <덤불 헤치기(草深)>(1940)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난다. 김사량의 <덤불 헤치기>는 동경제대(東京帝大) 의과생 박인식(朴仁植)이 연구조사를 위해 숙부가 군수(郡守)로 있는 조선의 한 산골 마을을 방문하여 겪게 되는 조선 농촌의 현실을 묘화한 작품이다. 군수인 숙부의 일본어 연설을 통해 강조되는 총독부의 색의(色衣)권장정책이 지닌 허구성, 농촌의 처참한 빈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화전민(火田民) 대책의 비현실성을 의학도 박인식의 시선을 통해 심도 있고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특히 색의(色衣)장려를 주장하는 군수의 연설 장면에서 색의장려 주장을 일본어로 말하는 ‘연설자’(군수), 또 이를 조선어로 옮기는 ‘통역자’(코풀이 선생), 그리고 듣는 ‘청중’(농민들이 모두 같은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식민지 언어 상황의 아이러니를 매우 연극적으로 드러내는 희극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색의장려정책에 대한 희화화일 것이다. 이 정책 또한 식민지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초창기 진흥운동은 색의장려, 금주단연(禁酒斷煙)과 같은 생활개선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sup>13)</sup> 전통적인 흰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색의(色衣)를 억지로 강권하는 희극적 상황을 김

11) 지수걸, 1932~1935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46호, 1984. 131면.

12)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109면 참조.

13) 지수걸(1999), 앞의 글, 20면.

10) 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47호, 1999년 여름호, 16-19면.

사랑은 <덤불헤치기>에서 일본어 연설이라는 우스꽝스런 연극적 상황을 동원하여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덤불 헤치기(草深し)>의 심층적 의도 역시 오영진의 <진상>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농촌정책의 실패와 모순을 폭로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영진의 <진상>과 김사랑의 <덤불 헤치기>는 매우 친연성이 깊은 작품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영진과 김사랑,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공통점이 매우 많다. 평양(평양고보) 출신, 기독교 명문가 출신, 제국대학 출신, 일본어 창작, 민족주의적 성향 등이 두 사람이 모두 공유하는 공통점이다. 첫째, 두 사람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평양에서 출생했고, 평양고보를 다녔다. 김사랑이 1914년생이고, 오영진이 1916년생으로 2년 차이가 나지만 고보에 입학한 해가 같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평양고보를 다녔다. 1928년에 평양고보에 입학한 김사랑은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는 동맹휴교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1931년에 퇴학 처분을 받고 도일(渡日)하였다.<sup>14)</sup> 반면, 6세에 소학교에 입학한 오영진은 연령 미달로 평양고보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자 1928년 양정고보(養正高普)에 입학한 뒤 1930년에 평양고보로 전학했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평양고보를 다녔던 기간은 대략 1년 남짓하다.<sup>15)</sup> 비록 두 사람이 함께 학교를 다닌 기간은 길지 않지만 평양고보의 동급생이었기에 적어도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교류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두 사람이 모두 평양 기독교 명문가의 자제였다는 사실도 두 사람의 친연성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서북의 지역성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외래 문물에 대해 유연한 수용력을 보여주었고, 보수적 규범의식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일제 강점기에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역은 기독교의 세력이 매우

강한 곳이었다. 더구나 서북 지역의 기독교는 재력 있는 토착세력, 상공인, 민족주의자들과 결합하여 강력한 민족주의적 기독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의 순교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듯이 일제 말기 신사참배의 결사적 반대의 진원지가 바로 평양의 기독교였던 것이다.<sup>16)</sup> 오영진의 부친은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고당(古堂) 조만식(曹晩植), 주기철(朱基徹) 목사 등과 함께 활동한 서북(평안도) 지방의 명망 있는 기독교 계열 민족운동가 오윤선(吳胤善) 장로이다. 오영진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오영진의 자택 사랑방은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등이 드나들며 민족운동의 현안을 논의하는 집합소였다고 한다.<sup>17)</sup> 한편, 김사랑의 모친은 기독교 계통의 승의여학교 출신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평양의 유명 음식점과 백화점을 운영한 재력가였다. 김사랑의 처가 역시 기독교 가문으로서 평양의 고무공장을 경영한 성공한 상공업자 계층이었다.<sup>18)</sup> 오영진과 김사랑, 두 사람의 성장 환경과 종교적 배경은 매우 흡사하다. 셋째, 두 사람 모두 제국대학 출신의 엘리트 문인이었다. 김사랑은 동경제대(東京帝大) 독문학과(獨文學科)를, 오영진은 경성제대(京城帝大) 조선어문학과(朝鮮語文學科)를 다녔으며, 재학 중에 각각 문학지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어 소설을 창작하였다. 김사랑은 동경제대의 일본인 친구들과 어울려 문학동인지 『제방(堤防)』을 발행하고, 소설 <토성낭(土城廊)>(1936)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어 소설을 창작하였다. 반면, 오영진은 앞서 살펴본 대로, 소설 <진상>(1936)을 발표하면서 경성제대 문학동인지 『성대문학(城大文學)』의 동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일본어 글쓰기(literacy)에 능숙한 제국대학 출신의 엘리트 문인으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의식세계가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넷째, 두 사람 모두 창작과 삶을 통해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진상>과 <덤불

14) 이정숙, 김사랑과 평양의 문학적 거리, 『국어국문학』145호, 2007. 239면.

김사랑, 『김사랑 연보』, 『빛 속으로』, 소담출판사, 2001. 참조.

15) 한옥근, 『오영진 연구』, 시인사, 1993. 16면.

한국극예술학회 편, 오영진 연보,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참조.

16) 서정민, 평안도 지역 기독교사의 개관, 『한국 기독교와 역사』3호, 1994. 23-24면.

17) 오영진, 『하나의 증언』, 중앙문화사, 1952. 8-9면.

18) 이정숙, 앞의 글, 241-244면.

헤치기>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 비록 일본어로 작품을 썼지만 작품 내면에서 조선총독부 식민지 정책의 모순과 실패를 비판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은연중 보여주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두 사람은 모두 실제 삶에 있어서도 민족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김사량은 일제 말기에 중국에서 연안(延安) 지구로 탈출하여 독립운동단체인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에 가담하였다.<sup>19)</sup> 오영진은 부친 오윤선 장로의 민족주의운동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조만식의 민족주의운동에 협조하였다.<sup>20)</sup>

실제로 오영진과 김사량은 이와 같은 친연관계를 갖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영진의 회고를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경에만 가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만 같았다. 뜻대로가 무엇인지 물론 나 자신도 확실히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해탄을 건넜다.

(가) 동경에는 아직 동대(東大) 학생인 김사량(金史良)이 유력한 동인잡지에 소설을 쓰고 있었고, 안영일(安英一)이 신협극단(新協劇團)에서 조연출을 보았고, 황헌영(黃憲永)이 이과전(二科展)에 출품하고, 문학준(文學準), 임동혁(任東赫)이 음악으로 날렸고, 주영섭(朱永涉)이 학생예술좌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들은 활동사진을 공부하겠다고 찾아온 식민지대학 출신의 문학자를 정답게 맞아들였다. (……)

학자가 되려고 조선문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술가가 되려고 영화공부를 한 것은 아니다. 성급한 나로서는 소설로는 내가 의도하

19) 김사량은 일제 말기 국민문학에의 참여가 더러움에 물들어가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생각하여 중국으로의 탈출 기회를 엿보기 위해 '위장 협력'을 감행하기로 한다. 그는 황군(皇軍) 위문단에 합류한 뒤 1945년 5~6월경 중국 연안의 항일지구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안우식, 신원섭 역, 『김사량 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23-24면.)

20) 오영진, 한 점의 검은 구름이, 『사상계』, 1962.4. 268-275면.

는 바를 급속한 시일 안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나) 문학(文學)을 사랑(史良)에게 맡기고 영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글재주에 있어 사랑(史良)에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내가 영화를 선택한 것은 예술가가 되려는 욕심보다는 '그 누구를 위하여' 일해 보겠다는 정열에서이다. 신문 한 장 읽을 줄 모르고 이야기 책 한 줄 제대로 못 읽는 그 누구를 위해서.<sup>21)</sup> (밑줄, 인용자)

영화에 뜻을 둔 오영진이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영화 공부를 위해 동경으로 건너간 것은 1938년 9월이었다. 그는 동경에서 동경발성(東京發聲)이라는 영화사에서 영화 수업을 받으면서 김사량, 안영일, 황헌영, 문학준, 임동혁, 주영섭 등을 만나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경에서 김사량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열거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평양의 기독교 명문가 출신이면서 고보 동창생이자 같은 문학의 길을 걸어온 제국대학 출신의 두 엘리트 문학인 사이에는 아마도 서로에 대한 존중심과 경쟁심 같은 것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진이 소설을 접고 영화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문학을 사랑(史良)에게 맡기고 영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글재주에 있어 사랑(史良)에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진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영진과 김사량,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는 이 두 명의 식민지 엘리트 지식인이 일본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동양(東洋)의 국제어(보편어)'로 부상한 일본어의 지위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식민지 강점 기간이 30년 가까이 흘러 한 세대가 교체되면서 이제 조선에서 일본어는 어느새 교육어, 정치어, 문화어로서 '고쿠고(國語)'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sup>22)</sup> 김사량은 식민지 조선 민중이 처한 현실을 세

21) 오영진, 위의 글, 270-272면.

22) 황호덕, 「국어와 조선어 사이, 내선어의 존재론」,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

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일본어로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시 일본어는 이미 조선의 식민지 엘리트가 세계적 보편성으로 통하기 위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매개체, 다시 말해 ‘세계문학(世界文學)으로의 입구(入口)’였던 것이다.<sup>23)</sup> 또, 당시 조선에 존재하는 언어적 이중성의 상황, 즉 ‘국어(國語)로서의 일본어/토착어(土着語)로서의 조선어’라는 이중언어적 상황이 조선에서 문학 창작을 하려는 작가의 앞에 놓여있는 글쓰기의 현실이었다.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일본어를 ‘공용어(公用語)’로 사용하고, 그 밖의 사적 영역에서 조선어를 ‘자연어(自然語)’로 사용하는 이중언어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언어 현실이었던 것이다.<sup>24)</sup> 이러한 선택적 이중언어 상황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급격하게 변화하더니 ‘고쿠고 상용(國語常用)’이 강요되는 1940년대에 들어서는 ‘표준어로서의 일본어/방언으로서의 조선어’라는 비선택적 이중언어 상황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상황에서 세계적 보편을 향해 문학적 재현욕구를 표현하려는 식민지 엘리트에게 일본어 창작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제국대학 출신의 식민지 엘리트들에게는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이중언어 상황에서도 유독 제국대학 출신 작가들(유진오, 이효석, 조용만, 오영진, 김사량 등)에게 일본어 창작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탁월한 일본어 실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학생들과 일본어로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치러 제국대학 입학에 성공한 그들이었기에 일본어로 창작하기는 별다른 난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sup>25)</sup> 동양의 국제어, 문화어에 능통한 제

국대학 출신의 문화적 우월함을 뽐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근저에는 제국대학 특유의 교양주의 의식, 즉 제국의 언어로 읽고 쓰는 것(literacy)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제국대학의 식민지 학생(또는 제국대학 출신의 식민지 지식인)에게는 은연중 현실에서의 차별을 특권적 교양주의를 통해 상상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물론 이러한 문화적 우월의식, 특권적 교양주의 속에서나마 그들은 민족주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작품의 내용, 주제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 형식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비틀어 사용하면서 조롱하고 희화하는 전유(專有, appropriation)의 현상이 김사량, 오영진의 작품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상>의 경우에는 이름이나 의성어를 표현할 때 음성기호를 통해 조선어의 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가령, 이름 ‘서씨(徐氏)’는 ‘徐氏Sasi’로, 의성어 ‘허허’는 이와 유사한 일본어 의성어를 사용하지 않고 ‘haha’와 같이 조선어 의성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 치마나 갈보와 같이 조선적 정서가 배어있는 단어는 일본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치마’를 ‘チマの裾’, ‘갈보’를 ‘ガルボ’와 같이 조선어 단어를 히라가나나 가타가나로 그대로 노출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sup>27)</sup> 즉, 오영진은 식민지시대 이중언어적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본어를 선택하여 창작을 했다는 작가적 한계를 보였지만, 그러한 한계 안에서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을 통해 소극적으로나마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자 했다.

문화연구원, 2008. 460면.

23) 황호덕, 김사량의 <빛 속으로>, 일본어로 쓴다는 것,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여름호. 144면.

24)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의 시선에서 본 이중어 글쓰기 공간에서의 글쓰기 유형론』, 『작가세계』, 2004년 겨울호. 355-365면.

25) 이준식, 『일제 강점기의 대학 제도와 학문 체계』, 『사회와 역사』 제61권, 2002. 208면.

26) 윤대석, 『경성체대의 교양주의와 일본어』,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426면.

27) 이와 같은 방식은 김사량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사량도 자신의 작품에서 조선어 이름을 가타가나로 그대로 노출하거나, 조선식 후리가나를 붙이거나 조선식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는 등 일본어에 대한 전유현상을 잘 보여주었다.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113면)



### 3.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계

오영진의 초기 작품 <진상>(1936)과 만년 작품 <한네의 승천>(1972) 사이에는 발표 시점으로만 보았을 때 무려 36년간의 거리가 있다. 이 두 작품 사이의 거리는 공교롭게도 일제의 식민지 기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 <진상>이 오영진 작품세계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한네의 승천>의 원작이 되기 때문이다. 오영진은 일제 말기에 소설 <진상>을 시나리오로 개작하여 <선녀의 새서방>이라는 제목으로 『국민문학(國民文學)』에 발표하기로 되었으나 국책문학(國策文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재가 거부되는 바람에 실리지 못했다고 한다.<sup>28)</sup> 현재 <선녀의 새서방>이라는 시나리오는 전하지 않고 있어서 1936년작 <진상>을 토대로 시나리오 개작과정을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작품이 시나리오의 형태로 초고가 창작된 것이 1940년대 초반이라고 본다면 오영진이 죽기 2년 전인 1972년에 발표될 때까지 30년이라는 오랜 숙고의 기간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영진은 해방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한 반공, 반일 민족주의의 길을 걸었고, 자신의 작품에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북출신의 기독교계가 편집진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사상계』의 필진<sup>29)</sup>이었던 그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방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한국어와 일본어를 뒤섞어 일기를

28) 한옥근, 앞의 책, 68면.

29) 1952년에 오영진이 창간한 문예지 『문학예술』은 『사상계』와 같은 건물(종로 한청빌딩)의 사무실을 사용했다. 오영진은 『사상계』에 문화정세론(1953.6), 소련의 두 영화작가(1961.11), 협계를 달리는 영화산업(1962.5) 등의 평론과 「한 점의 검은 구름이」(1962.4), 운명과 기회(1969.5-6) 등의 자전예세이, 그리고 희곡 <정직한 사기 한>(1953.9), <아빠빠를 입었어요>(1970.3) 등을 게재한 바 있다.

썼다.<sup>30)</sup> 그가 쓴 일기는 그가 죽은 뒤 미망인 김주경이 보관해오다가 한 연극연출가에게 넘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년에 쓴 극작품에는 반일 민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노골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희곡 <아빠빠를 입었어요>(1970), <모자이크 게임>(1970), <동천홍>(1973) 등을 보면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아빠빠를 입었어요>에서는 일본인 부인과 결혼한 재일교포 김상훈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려하자 부인 기요꼬가 일본인 정부(情夫)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동천홍>은 김옥균의 갑신정변 실패 원인을 일본의 조선 침략 야욕에서 찾고 있다. 그러다보니 김옥균, 박영효 등과 같은 갑신정변의 주역보다 정변을 이용하여 조선 침략을 도모하려는 다카소에 일본 공사, 시마무라 서기관, 무라카미 중대장 등 일본 정부의 음모에 작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 비둘기장 같은 동경? ……그것 역시 나 때문인가?

기요꼬 : 당신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누구의 탓임엔 틀림없어요.

김 : 그 누구의 탓?

기요꼬 : (차츰 격해지며) 양미간이 넓고, 광대뼈가 편편한 사람들! 둘만 모여두 떠들구 싸우구 칼부림허구, 게으르구, 마눌 냄새가 코를 찌르는!

김 : (화를 낸다) 듣기 싫어!

기요꼬 : (더욱 흥분하며) 그 사람 탓이 아님, 누구 탓이요? 쓰레기, 니 꼬용, 깡패, 밀주, 마약!

김 : (누른 소리로, 그러나 항의하듯) 누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지? 그 사람들을 억지루 이 땅에 끌어다 놓구 오늘 저렇게 만든 건 누구냐 말야!<sup>31)</sup> — (1)

30) 오영진의 일기는 해방 직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쓰여졌으며, 필자는 일기 내용의 일부를 김윤미 선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기 내용을 확인시켜준 김윤미 선생께 감사드린다. 현재 김윤미의 박사논문 「오영진 극문학에 나타난 ‘민족’ 표상 연구」(연세대, 2010)에 일기 내용의 일부가 인용, 소개되어 있다.

**가와카미** : 지나간 일이지만 재작년 군란 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너무 미온적이었어요. '오보상'들의 빨만 길러준 셈이거든요. 그저 그때, 따끔히 본뺨 뵈웠어야 는걸.

**시마무라** : 처치 곤란한 백성이야.

**가와카미** : 그저 씨두 없이 멸종을 시켜야 해요! 구제할 도리가 없는걸요. 자기넬 도우려구 온 우리한테 총뿌릴 겨누다니!<sup>32)</sup> — (2)

인용문 (1)에 나타난 김상훈의 일본인 처 기요코의 대사에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일본인 특유의 본심(本心, 혼네)이 쏟아져 나온다. 한국인을 멸시하는 기요코의 말에 김상훈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주장하며 항의한다. 인용문 (2)에서 일본인 공사관 관리들이 퍼붓는 한국인에 대한 모멸적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장면들은 자연스레 관객, 혹은 독자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작품을 통해 관객, 혹은 독자의 일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아빠빠를 입었어요>, <모자이크 게임>, <동천홍>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sup>33)</sup> 이처럼 작품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보여주듯이, 만년에 오영진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강박관념은 극도에 이르게 된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명동의 한 찻집에서 갑자기 “일본 놈들이 쳐들어 온다.”며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일화가 있었으며, 부인 김주경이 어느 대답에서 오영진이 때때로 일본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sup>34)</sup> 결국 그는 정신분열증으로 동대문 이대부속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에 이른다. 반일주의가 심화될수록 그

31) 오영진, <아빠빠를 입었어요>, 『오영진전집(2)』, 범한서적주식회사, 1989. 17-18면.

32) 오영진, <동천홍>, 『오영진전집(2)』, 범한서적주식회사, 1989. 248면.

33) 백현미는 오영진의 이러한 작품들이 일본의 신식민주의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친일 의존성과 역사외식 빈곤도 문제 제기하였으며, 일제와 한국민을 동시에 희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백현미, 탈식민주의적 상상력과 민족주의, 『한국희곡의 지평』, 연극과 인간, 2003. 150면.)

34) 유민영, 정치에 희생된 인텔리 극작가,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19면.

는 더욱 더 일본어, 일본영화, 일본음식 등 일본적인 취향에 빠져있는 자기 삶에 대한 죄의식과 자기검열, 자기부정에 깊이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sup>35)</sup> 어린 시절부터 뻗속 깊이 일본어가 배어있어서 일본어로 사유하고 일본어를 섞은 일기까지 써야했으며 일본적인 취향에 은연중 빠져있던 오영진에게 극단적인 일본 증오와 혐오의 태도는 결국 자기모멸과 자기부정에 이르고 정신분열증에 빠지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아빠빠를 입었어요>(1970), <모자이크 게임>(1970), <동천홍>(1973) 등과 같은 반일 민족주의 성향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이념 과잉의 편향성에 비하면, <한네의 승천>(1972)은 민족적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이념 과잉의 편향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작품이다. 윤희의 사상과 한(恨)의 정서, 그리고 마을굿, 가면극 등과 같은 전통 연희적 기법들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시기의 다른 작품들에 나타난 이념적 민족주의 성향과는 매우 구별되는 것이다. 첫째, 다른 작품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의 신식민주의를 경계하면서 산출된 당대적 산물인데 비해 <한네의 승천>은 1930년대의 <진상>에 기원을 두고 1940년대의 시나리오 <선녀의 새서방>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숙고된 작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네의 승천>은 상대적으로 <아빠빠를 입었어요> 등과 같은 반일 민족주의 작품들에 비해 과도한 이념적 성향이 덜 나타날 뿐 아니라 극적 완성도에 있어서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7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전통극의 현대적 재창조라는 연극계의 흐름에 맞춰 한국의 민족정체성을 담은 <허생전>(1970), <한네의 승천>(1972)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극에서의 전통 수용은 오영진이 1940년대에 <배뱅이굿>, <맹진사댁 경사>를 통해 이미 선구적으로 시도했던 작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1950~60년대의

35) 김윤미, 오영진 극문학에 나타난 '민족' 표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0. 105-106면.

공백기를 지나 1970년대에 다시 전통 수용의 작업을 재개하는 맥락 위에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한네의 승천>은 비록 최초에 시나리오 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이후 극단 민예가 1975년에 음악극 형태로 각색(장소현 각색, 김영동 음악, 손진책 연출)하여 공연하였고, 1976년에 문화체육관, 1979년에 세종문화회관, 1983년에 국립극장, 문예회관에서 연이어 공연하여 '한국적 음악극 개발의 이정표'라는 찬사를 받으며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해서 연극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sup>36)</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네의 승천>은 오영진의 만년작품으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네의 승천>은 그 원작이 되는 소설 <진상>을 계승하면서 일층 발전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영진은 <진상>에 나타난 일제의 식민지 농촌정책 비판이라는 내용적 민족주의를 소거하고 그 대신에 한국인의 민족 원형 심성과 불교적 윤회사상, 민속의례의 구조(마을굿)와 전통 연희의 표현형식(가면극, 남사당패놀이) 등 한국적 정체성의 표현방식에 중점을 두는 양식적 민족주의에 치중하는 선택을 하였다.

선녀동(仙女洞)의 술꾼이자 난봉꾼인 만명은 선녀(仙女)뭉에 투신하려던 한네를 구해서 같이 살게 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사당패 부모로부터 돈에 팔려 전전하다가 창녀(娼女)로 전락한 자신의 삶을 비판하여 자살하려던 한네도 만명과 더불어 살면서 비로소 삶을 애착을 갖게 된다. 만명은 한네가 자살한 자신의 어머니와 닮았기에 더더욱 그녀에 대해 애착을 가진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한네에게 어머니가 남긴 치마를 준다. 선녀(仙女) 같은 여인을 얻은 만명은 동네 사람들과부터 은연중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된다. 마을굿(洞祭)이 벌어지는 기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외지인을 마을에 들이는 것이 부정(不淨)한 것이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36) 유인경, 극단 민예극장의 가무극 <한네의 승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3집, 2006. 163-166면.

**이장** : 그래 만명이 녀석이 계집을 끌어들었다구?

**쇠돌이네** : 예, 마님...

**박씨** : 이 마누라가 똑똑히 제 눈으루 봤다는구려, 영감.

**쇠돌이네** : 예, 틀림없이 읍내 술집 계집이에요. 막 옷티를 빨거벗구 설랑 아랫목에 척 누워서...아이구, 하느님 맙소사, 마님!

(울먹이는 쇠돌이네를 달래며.)

**박씨** : 그만해요, 쇠돌이네. 영감이 알아서 좋게 처리할테니까. 영감, 쇠돌이네 사정두 딱허지만 영감 꼴은 뵈이 되구, 동넨 어떻게 됩니까. 금줄을 치구 온통 동네가 치재를 드리는 이 마당에 외관 것들이 들구남, 부정을 타거든요.

**이장** : 아때! 그걸 모르지 않으니까 걱정이지. 쇠돌이네, 그만하면 알았으니 어서 나가보세. 제삿날 전으루 가부간 규정을 뵈세.

**쇠돌이네** : 영감마님만 믿어요.

(총총히 밖으로 나간다. 박씨, 쇠돌이네를 내보내고.)

**박씨** : 영감, 글썽 그놈이 미쳤지. 하필임 제삿 앞두구 어찌자구 외관계집을 끌어들인다우?

**이장** : 누가 아니래... 언제나 만명이놈이 말썽이라니까.<sup>37)</sup>

술꾼, 난봉꾼으로 소문난 만명을 짝사랑하는 쇠돌이네가 만명이 금기를 어기고 외지사람인 한네를 마을로 끌어들여 같이 사는 것을 이장 부에게 일러바치는 것은 질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마을의 금기를 어긴 만명의 행동, 더군다나 '술집 계집'을 마을로 끌어들인 행동은 마을공동체의 비난을 얻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한네의 승천>이 소설 <진상>의 기본적 갈등구조를 차용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술꾼, 난봉꾼인 만명이 '선녀'같은 여인을 얻어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데 마을 사람들의 질투와 비난에 가로막혀 곤란함을 겪게 되는 갈등구조는 <진상>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여기서 만명은 <진상>의 철

37) 오영진, <한네의 승천>, 『오영진전집(4)>, 범한서적주식회사, 1989. 145면.

수에, 한네는 <진상>의 '선녀' 같은 여자 서씨에, 그리고 쇠돌이네는 <진상>의 본처 김씨에 해당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장은 <진상>의 성삼에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굿을 수행하는 걸립(乞粒)패들의 요구에 의해 한네가 만명 어머니가 낳긴 한 벌밖에 없는 치마를 내주게 되자 만명은 어쩔 수 없이 마을굿이 행해지는 동안 마을을 벗어날 수 없는 금기를 어기고 한네의 치마를 장만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 장터로 간다. 장터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름에 손을 댄 만명은 한네를 위해 장만한 옷감을 뺏으려는 여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만다. 마을굿 기간에 외지인을 들이고 임의로 마을을 벗어나는 금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죄악까지 저지르면서 상황은 극한에 이르게 된다. 만명이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몸을 피하는 사이에 상황은 더 악화된다. 만명의 실부(實父)이자 마을굿의 제주(祭主)인 필주가 만명 어머니의 치마를 입고 소지(燒紙)를 하기 위해 나타난 한네를 보고 20년 전에 자기가 능욕했던 만명 어머니로 착각하여 한네를 겁탈하게 되는 것이다.

**필주** : 바루 그 치마였다! 이십년 전... 아무말 없이 내 앞을 떠난 그 계집두 바루 그 치마 입었다. ...아무 소리두 없이 내 앞에서 사라졌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구...언젠가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리라구 믿구 기다렸다.

(더욱 가까이 한네에게 육박하며, 애원하는 필주)

**필주** : 아가, 날 몰라보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나?

**한네** : 아, 제수마님!

**필주** : 나를 잊었느냐, 아가! 이십년 전의 나를!

**한네** : 아! 영감마님, 원넌, 원넌... 모르는 일이에요. 마님!

**필주** : 아가, 네가 동네에 들어오던 날 새벽부터 네가 내 것이란 걸 알구 있었다. 오늘 입때까지 기다렸다. 아가... 넌 내 것이야. 널 뺏길 순 없단 말이다!

**한네** : 마님! 전, 이 댁 주인을... 모시기루 정한 몸이에요.

**필주** : 만명인 돌아오지 않는다!

**한네** : 예?

**필주** : 내 말을 믿어라, 아가. ... 넌 산신님이 점지하신 내 계집이다!<sup>38)</sup>

만명 어머니와 필주 사이에 벌어진 20년 전의 악몽이 한네와 필주에게 다시 재현되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명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필주에게 겁탈당한 한네는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선녀못에 올라가 투신자살하고 만다. 뒤따라 온 만명도 한네를 따라 투신자살하게 된다.

<진상>에서 '선녀' 서씨를 둘러싼 철수와 성삼의 갈등은 <한네의 승천>에서 '선녀' 한네를 사이에 두고 만명과 필주의 애욕 갈등으로 변주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명의 적대자가 앞서 등장한 이장이 아닌 만명의 실부(實父)이자 마을굿 제주(祭主)인 필주가 된다는 사실이다. 만명과 필주의 갈등구조는 필주가 제주이며, 극의 사건이 마을굿 기간에 벌어진다는 점에서 극이 단순히 한네를 둘러싼 애욕의 삼각 갈등구조에 머무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이 극의 시작과 해결의 장소인 '선녀담'에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죽음과 재생의 신비스런 원초적 심상으로 관객, 또는 독자에게 비쳐지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sup>39)</sup> 이는 만명과 필주의 갈등구조가 현실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 욕망으로 인해 빚어진 원초적인 숙명의 비극으로 작품을 재구성해 가는 것이다. <한네의 승천>이 <진상>으로부터 일층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배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8) <한네의 승천>, 182면.

39) 김승옥, <한네의 승천>의 제의구조 연구,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72면.

#### 4. 결론을 대신하여

<맹진사댁 경사>와 <한네의 승천>은 한국의 민족정체성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서 한국 극문학의 정전(正典)으로 꼽힌다는 점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오영진은 자신의 민족주의자로서의 활동과 결부되어 한국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재현한 극작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 시대에 5편의 일본어 소설과 2편의 일본어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특히 그가 1930년대 일본어로 쓴 소설 <진상>은 한국적 정체성을 잘 구현한 극문학 정전으로 인식되어온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의 원천이 되는 작품이다. 가장 민족적인 작품으로 인식되었던 작품이 일본어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는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본고가 갖는 문제의식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제점령에 시달렸던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는 자연스레 일본어로 쓰고 발표된 이른바 '외지(外地) 일본어문학'이 양산되었고, 이를 두고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는 '친일문학', 또는 '한간(漢奸)문학', '윤합구(淪陷區)문학'이라는 시비와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외지 일본어문학'을 단순하게 민족을 배신한 문학행위로 재단하기보다는 1930-40년대 일본 점령 하의 동아시아 대제국에서 발생한 초민족적(trans national) 문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sup>40)</sup>

1930년대 일본어소설 <진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상>은 표면구조를 보면 인간의 애욕과 질투라는 욕망의 갈등을 다룬 통속적 작품으로 비쳐지지만 심층구조를 분석해보면 당대 총독부의 식민지 농촌진흥정책(자력갱생운동)의 허구성을

예리하게 꼬집고 비판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다. 이는 오영진과 동향의 평양고보 동창생 작가 김사랑의 소설 <덤불 헤치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식민지시대 일본어에 능숙한 엘리트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일본어문학이 지닌 양가성, 즉 상대적으로 일체의 검열이 허술한 일본어창작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민족주의적 욕망을 표출한 측면<sup>41)</sup>, 그리고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피식민지의 차별을 극복하고 제국의 문단 중심, 세계적 보편성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제국 주체로의 욕망이 병존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상>과 <한네의 승천>, 두 작품 사이에 슬픈, 난봉꾼인 주인공이 새로운 사랑을 얻어 갱생하려고 하지만 적대자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는 서사구조에서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진상>에서는 서씨를 둘러싼 철수와 성삼의 삼각 갈등구조가, <한네의 승천>에서는 한네를 둘러싸고 만명과 필주의 삼각 갈등구조가 빚어진다는 점은 매우 유사하다.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주인공을 '선녀(仙女)'의 이미지로 표상한 점도 동일하며, 기본적인 인물 설정 방식 또한 유사하다. 다만, <진상>에서는 일제 식민지 농촌정책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데 초점이 놓여있었던 것에 비해, <한네의 승천>에서는 현실 비판적인 요소는 소거한 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숙명, 그리고 불교적 윤회(輪廻)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 주력했다. 더 나아가 마을굿(洞祭)이라는 민속제례의식과 탈춤, 사당패놀이 등 전통연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의식을 담아 작품 속에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현해내고자 하였다.

<진상>에서 <한네의 승천>으로 나아가면서 오영진의 민족주의는 분명 진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민족의 삶에 나타난 질곡을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를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한 민족의 근원적 정서(恨), 동양적 윤회의 세계관이라는 내면적 민족정체성

40) 식민지 일본어문학 문화연구회, 『제국 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1)』, 문, 2011. 참조.

41) 노상래, 『죽음의 미적 근대성에 대한 일 고찰』, 『제국 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1)』, 문, 2011. 279면.

을 마을굿, 탈춤, 남사당놀이 등 전통 민속연희양식 등 외형적 민족정체성과 결부시켜 심오하게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층 깊이 있는 내면적 속성을 획득하고 있다. <한네의 승천>이 같은 시기 오영진의 다른 작품들이 겪는 이념과잉의 분열양상에 비해 민족적 정체성을 보다 완숙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36년 전 <진상>의 창작 체험이 그의 의식 심층세계에서 오랫동안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근삼, 서연호 편, 『오영진전집』, 범한서적주식회사, 1989.  
 안우식, 신원섭 역, 『김사랑 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오영진, 『하나의 증언』, 중앙문화사, 1952.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한옥근, 『오영진 연구』, 시인사, 1993.  
 식민지 일본어문학 문화연구회, 『제국 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1)』, 문, 2011.  
 한국극예술학회 편,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2. 논문

권오만, 「오영진의 삼부작에 대하여 - 구비문학과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김승욱, 「<한네의 승천>의 체의구조 연구」,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김윤미, 「오영진 극문학에 나타난 ‘민족’ 표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0.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의 시선에서 본 이중어 글쓰기 공간에서의 글쓰기 유형론」, 『작가세계』, 2004년 겨울호.  
 노상래, 『淸涼』 소재 이중어 소설에 대한 일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35집, 2008.  
 노상래, 「죽음의 미적 근대성에 대한 일고찰」, 『제국 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1)』, 문, 2011.

백현미, 「탈식민주의적 상상력과 민족주의」, 『한국회곡의 지평』, 연극과 인간, 2003.  
 서연호, 「오영진, 웃음의 미학 혹은 비판적 투시」,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서정민, 「평안도 지역 기독교사의 개관」, 『한국 기독교와 역사』 3호, 1994.  
 신미삼, 『『淸涼(淸涼)』 소재 이중어 소설 연구』, 『한민족어문학』 53집, 2008.  
 유민영, 「정치에 희생된 인텔리 극작가」, 『오영진』, 연극과 인간, 2010.  
 유인경, 극단 민예극장의 기무극 <한네의 승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3집, 2006.  
 윤대석, 「경성체대의 교양주의와 일본어」,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이정숙, 「김사랑과 평양의 문학적 거리」, 『국어국문학』 145호, 2007.  
 이준식, 「일제 강점기의 대학 제도와 학문 체계」, 『사회와 역사』 제61권, 2002.  
 정선주, 「오영진 시나리오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6.  
 지수걸, 「1932~1935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 46호, 1984.  
 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47호, 1999년 여름호.  
 황호덕, 「국어와 조선어 사이, 내선어의 존재론」,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황호덕, 「김사랑의 <빛 속으로>, 일본어로 쓴다는 것」,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여름호.

Abstract

languages, Japanese or Korean. For Oh Youngjin, language and nationalism are the separate issues.

Key words : Oh Youngjin, bilingual writing, nationalism, canon, Kim Saryang, folk ritual

Oh Youngjin's Writing And Nationalism : The Relation Between <Jinsang> And <Hanne's Ascension>

Lee, Sang woo

This thesis's aim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Korean dramatist Oh Youngjin's writing and nationalism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a novel <Jinsang> and a screenplay <Hanne's Ascension>. Oh Youngjin's screenplay <Hanne's Ascension> still has been recognized as a canon of Korean drama because it successfully represents national identity of Korea. Therefore, Oh Youngjin wa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national dramatist in Korea. However, He already wrote five novels in Japanese, especially in 1930's, under the Japanese ruling era, though it wasn't forced to write only Japanese language during 1930's. So, we can interpret he spontaneously wrote some novels in Japanese language, because he thought writing in Japanese at that time meant to show himself as a well cultured person and to reach to the universality and heart of literature, as like many colonial Korean intellectuals's thought. His novel <Jinsang> was a representative one in Japanese during 1930's. And then, the problem is that <Jinsang> is the original work of screenplay <Hanne's Ascension>, which is evaluated as a canon of Korean drama. However, the focus of <Jinsang> is to criticize the agrarian improvement policy's unrealistic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hereas the focus of <Hanne's Ascension> is to reveal the fatal tragedy of the Orient world and the mentality of Korean 'Han'(resentment) through Hanne's tragic and fatal narrative. Moreover, Oh Youngjin used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tyle and Korean folk ritual style for accomplishing this purpose. In conclusion, Oh Youngjin consistently had pursued the nationalism during the colonial Korea, and the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ruling, regardless of his writing

접수일: 2012년 2월 18일  
심사기간: 2012년 2월 20일~3월 2일  
게재결정: 2012년 3월 2일